

나는 바다에서 쉰다, 해양 휴양지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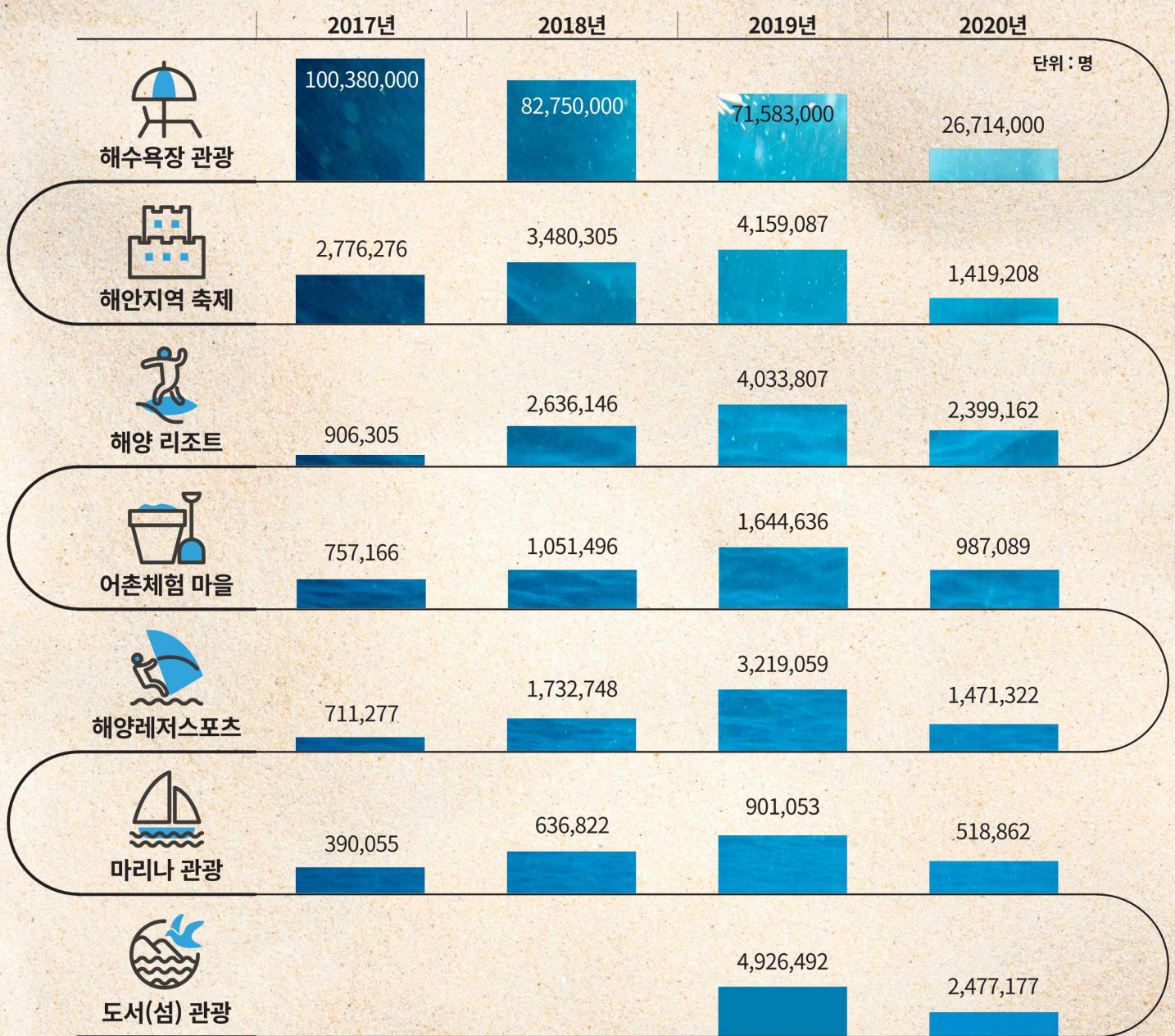
해양레저관광이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해양관광이란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 해양관광은 대개 바다에 대한 의존도의 관점에서 구분하고 해양관광의 유형에 따라서 정의할 수 있는데, 해양관광은 해양에 의존한 활동과 해양에 연관한 활동으로 크게 구분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관광객의 관광활동으로 정의



자료: 정석중·이미혜(2004). 해양관광론. 대왕사
 해양수산 레저관광업은 즉, 서비스, 유통, 제조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객의 관광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해 수반되는 연관 산업을 모두 포함하는 산업활동'

우리나라 해양레저 관광 현황



2022 국내 관광활동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해양수산부_해양레저시설 이용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85296/fileData.do>



2022년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지난 한 해(2021년) 동안 전체 국내 관광활동 중에서 해양 관광활동에 참여한 비율을 설문한 결과, 참여비율 평균은 31.6%로 10명 중 3명이 해양관광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희망하는 해안가에서의 여가활동을 살펴본 결과, '해안경관감상'이 3위로 뽑혔으며 특히 '해수욕' 응답이 전년대비 3.4%p 증가함

● 해안 관광 시 불편사항을 살펴본 결과, '관광 콘텐츠의 다양성 부족' 항목이 2위로 뽑혀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음

해양치유센터 추진 계획

2021년 12월 6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해양수산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레저활동 인프라 조성, 사업예산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대수명 증가, 생활수준 향상 등의 원인으로 웰니스 관광과 같은 건강 관련 산업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요 증대 기대
현재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으로 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 등에서 1,354억 원의 사업비가 마련 이후 해양수산 관광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태안군 해양치유센터

매장량이 풍부한 피트, 소금자원, 모래해변을 기반으로 한 근골격계 질환 완화 및 피부미용 특화 프로그램 개발, 수도권 등 대도시 방문객 대상 서비스 제공

대표치유지원 머드, 소금, 토탄
주요 치유 프로그램 레저복합
주요 도입시설 해양치유시설, 재활센터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우수한 해양경관과 기후자원을 바탕으로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및 피로회복 특화 프로그램 개발

대표치유지원 어패류, 해양경관, 기후
주요 치유 프로그램 기업 연계형
주요 도입시설 해양치유센터/교육센터, 해수풀

사업비

1,354억 원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온화한 해양기후와 풍부한 해조류 자원을 기반으로 재활치료·대사증후군 완화 프로그램에 특화, 재활 병원 또는 스포츠 전지훈련장 유치 및 연계 추진

대표치유지원 전복, 해조류, 바다모래
주요 치유 프로그램 스포츠 재활형
주요 도입시설 해수풀, 해양치유테라피시설



울진군 해양치유센터

청정한 해양기후와 염지하수 자원을 기반으로 4계절 관광자원 및 해양레저 인프라를 활용한 장기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림·온천 치유와 융합

대표치유지원 염지하수, 해송
주요 치유 프로그램 중장기 체류형
주요 도입시설 해양치유시설, 장기치유시설

